

중간배당株로 여름보너스 받을까

삼성전자·포스코·SKT 5년연속...저가매수기회 노려볼만

여름철 중간배당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최근 원화 강세와 민간 소비 위축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외국인 매도세도 지속되고 있어 코스피 반등 포인트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막연히 코스피의 기술적 반등만 노리는 것이 망설여지는 투자자라면 배당수익과 주가 상승을 동시에 노려볼 수 있는 중간배당 종목 투자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내 증시의 적박한 배당 토양 속에서 꾸준히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포스코, SK텔레콤, 에스오일, 한국셀섹유, WISCOM, 하나투어, 한국단지공급, KPX케미칼, KPX그린케미칼 등 10개 종목, 코스닥시장에서 경동제약, 대화제약, 인탑스 등 3개 종목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아직 실시 여부가

5년 연속 중간배당 실적 종합 (단위:%)

종목	시가배당률	지난해 하반기 추가상승률
삼성전자	0.04	2.24
포스코	0.67	9.38
SK텔레콤	0.49	9.52
에스오일	0.6	1.09
한국셀섹유	0.5	25.27
WISCOM	2	-1.5
하나투어	0.7	-10.01
한국단지공급	0.3	26.33
KPX케미칼	0.8	1.11
KPX그린케미칼	1.1	3.55

* 배당 기준일은 6월 30일.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5년간의 경험상 올해도 중간배당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 중 일부 종목은 제외하면 아시아 PE시장이 중간배당 하반기에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도 중간배당을 앞두고 투자하면 배당수익과 주가 상승을 동시에 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간배당 종목 투자에 성공하려면 최근 상승 모멘텀이 있는 기업을

배당수익을 올린 뒤 하반기에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야 '시세차익+배당수익'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시가배당률 0.04%의 중간배당을 실시했다. 다만 지난해 6월 초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JP모건 보고서가 나오면서 6월 한 달 간 12.74% 급락했다. 중간배당을 노린 투자자들에게는 적절한 저가 매수 타이밍을 제공했던 셈이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이후 반등에 성공하면서 배당수익뿐 아니라 시세 차이도 함께 확보할 수 있었다.

변환준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삼성전자가 주는 중간배당 규모가 확인되는 7월까지의 월보 수익률에 따라 배당수익이 있는 종목은 선별하는 것이 중간배당 투자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실적보다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이후 7.92% 상승한 포스코는 사업구조 재편과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박기현 중앙증권 연구원은 "포스코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3분기 연속 영업이익의 성장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하반기에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배당주로 꼽히는 SK텔레콤도 단말기 유통법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은 통신사의 과당 경쟁을 규제하는 법이어서 기존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하나투어는 여행심리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배당수익을 전제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중간배당 투자의 기본"이라면서 "투자종목이 선정됐다면 최대한 저가에 매수해서 배당수익을 얻은 뒤 고가에 매도할 수 있도록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적절히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외국인 몰려든 채권 단기채 쏠림 주의보

원화약세 땀 무더기 매도 우려

외국인 매수세 유입으로 최근 채권 금리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장에선 '단기채 쏠림'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국내 채권시장으로 매달 1조원씩 넘는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만 대부분 만기 1년 이하 단기채 매수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KTB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4월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시장에서 3조2368억원 규모 단기채를 매수했지만 만기 2년 넘게 남은 채권은 1조5000억원 넘게 매도됐다.

전문가들은 "단기채 위주의 매수세를 감안할 때 최근 국내 채권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단기채 비중이 높은 채권은 달러 환율 하락세에 대해 침묵해 왔던 기획재정부

원화 강세·달러화 약세 현상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며 "지급차액 환차익을 노린 단기 투자가 늘어날 경우 향후 환율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외국인 매도가 급증해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엘런 의장이 통화정책에 대한 강경 발언을 내놓거나 외환당국의 환율시장 개입 등 변수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 매수세가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간 원·달러 환율 하락세에 대해 원·달러 환율 하락세에 대해 침묵해 왔던 기획재정부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을 매수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인 원화 강세에 제동이 걸린다면 주력 매수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김혜순 기자

지탄받던 국내펀드 순자산 4조 감소

주식형 펀드와 머니마켓펀드(MMF) 부진으로 지탄받던 국내 순자산이 4조원 이상 쪼그라들었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펀드의 순자산은 한 달 만에 4조원 감소한 33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자금 이탈은 주로 주식형 펀드와 MMF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채권형 펀드로는 자금이 더 들어왔다.

국내주식형 펀드는 코스피가 2000선에 다가서면서 차익 실현을 위한 환매 수요가 늘어나 1조5000억원의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순 기자

외화채권 거래정보 공식

오는 7월부터 외화채권의 국내 거래 상황을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12일 금융투자협회는 외화채권 매매를 중개한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정오까지 내용을 보고받아 이를 채권정보 홈페이지에 공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화채권이란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 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등으로 최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투자대안 상품으로 각광받으며 거래 수요가 늘고 있다. 세부 방안이 확정되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뒤 7월부터 외화채권 국내 거래 정보를 공식할 계획이다.

알립니다

자산운용 발전방안 재무학회 심포지엄

한국재무학회가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2014 한국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정책심포지엄에는 재무·금융학자들과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국 자산운용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현안과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시=5월 15일(목) 오후 2-6시
 ◇장소=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실 2층
 ◇문의 = 한국재무학회 (02)2003-9921

주최 : 한국재무학회
 후원 : 매일경제신문

유가증권시장 공식

- ◇DGB금융저축=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자본 일부 매각으로 최대주주 삼성생명으로 변경.
- ◇후성=울산공장 사고 발생으로 기초화합물 생산라인 작업 중지.
- ◇조비=제3자(경남) 배정 유상증자 136만주 15일 보호예수기간 만료.

코스닥 공식

- ◇아이엘=중국법인 산탄아이엘디지탈전자유한공사 광역급 부품 생산 영업정지.
- ◇한글과컴퓨터=린드PE의 MD5 테크놀로지 보유주식 취득선 계약 체결.
- ◇엔피케이=NIPPON PIGMENT 대상 85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 ◇차이나하이오=자회사 상치우신통지업유한공사 115억원 규모 주주배정증자 결정.
- ◇와이즈파워=자가 발전형 발광재 관련 특허권 취득.

오늘의 일정

- ◇신주배정기준일=우리종합금융 케이씨제건설 국제제이(유상)
- ◇연계분할=케이씨제이(5000원→500원)
- ◇추가발행=도이치모토스 케이 지모발리스(BW) 블루콤(부상) 유니온스틸(CB)

“QE 축소, 亞 사모투자자에 큰 기회”

데니스 체 록히드마틴기금운용 아시아 대표



GAII 2014

“미국 양적완화(QE) 축소는 아시아 사모투자자(PE)시장 성장의 기록제가 될 것이다.”

록히드마틴기금운용에서 사모투자(PE)를 총괄하는 데니스 체 아시아대표는 13일 서울 호텔나사에서 열리는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GAII 2014) 참석을 앞두고 인터뷰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PE시장이 중요한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신문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KC)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콘퍼런스에 “아시아 투자 매력도” 세션 패널 토론자로 나서는데 체 대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대체투자시장에 오히려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체 대표는 “양적완화 축소가 주식·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자산시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대

체투자시장에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QE 이후 금리와 환율 변동에 따라 PE시장 내 투자자산 편입(본질적인 가치)과 시장가격 사이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이 차이가 수의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 대표는 한국 PE시장에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록히드마틴은 한국 PE시장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현재 투자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록히드마틴기금운용은 세계 최대 방위산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 계열사로 330억달러(약 33조8500억원)에 달하는 록히드마틴 내부 자금과 퇴직연금 등 자산을 운용한다.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곳 가운데 하나다. 록히드마틴기금운용은 전체 자



레이더M(RaytheM.kr) 보도

산(AUM) 중 약 8%에 달하는 2조7000억원을 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PE 시장에 투자한다. 아시아 PE 시장에 투자한 자금은 6200억원에 달한다. 부동산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전체 투자자산의 5%인 1조6900억원을 부동산에 넣었다.

체 대표는 전체 투자자산 중 PE 투자 비중을 점차 늘릴 방침이다. 그는 “PE 부분 투자 비중은 10%까지, 부동산 투자 비중은 7% 수준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법인을 통해 현지 자산운용사(GP)들과 교류를 늘려 투자 기회를 모색한다”며 “아시아 현지 운용사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찾아내 공동 투자를 제안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서태욱 기자·윤필두 인턴 기자

‘착한기업’ SRI지수 수익률은 안 착하네

대형株 부진에 올 4%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른바 ‘착한 기업’ 들을 묶어 만든 사회적 책임투자(SRI)지수 수익률이 신통치 않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지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익률을 점차 늘려 방심하지는 못 미칠 전망이다.

2009년부터 한국거래소가 산출하고 있는 SRI지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경영 투명성이 높은 70개 상장기업에 편입해 만든 지수다. SRI지수는 산출된 시점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코스피 수익률에 웃도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난해 처음으로 시장 성과(0.72%)에도 못 미치는 0.16% 수익을 기록하더니 올해 들어서도 지난

12월까지 3.90% 하락해 2.31% 떨어진 코스피보다 큰 손실을 냈다. 이처럼 SRI지수의 성과가 저조한 것은 삼성전자, 현대차, 한화전력 등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구성된 지수 때문인데, 중소기업 비중이 낮아지고 대형주가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며 하락폭이 커진 것이다.

정성호 한국거래소 인덱스관리팀장은 “SRI지수는 경기 민감 대형주가 대거 포함돼 환율 등 변수에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정보제공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30개 SRI 펀드의 1년(단기), 5년(장기) 평균 수익률은 각각 -2.76%와 27.12%로 국내 주시형 펀드 평균인 -0.53%, 39.0%에 못 미치는 추세를 보였다. 김진형 기자

고객만족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보물섬투어 21주년 Anniversary

보물섬투어는 (주)우리투어의 브랜드입니다.

대표 02)2003-2000 www.bomultour.com

2억원 보물섬투어 기업 55억원 배상책임보험 기업 아시아·태평양 | 대한항공 선정 우수 대리점

전세계 할인항공 실시간 예약 02)2003-2114

홈페이지 예약서 컨설팅 마일리지 적립! | www.bomultour.com

중국 ★가성비 서비스입니다 02)2003-2100

태항산은 꼭 보물섬투어로 다녀오셔야 합니다!

태항대협곡/구련산/만선산/천계산/청도 75일 199,000원

5월/6월/7월 연휴 특별가

5/18,21,22,23,24,25,26,27,28,29,30,31 6/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7/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태항대협곡/구련산/만선산/천계산/청도 75일 399,000원

5월/6월/7월 연휴 특별가

5/18,21,22,23,24,25,26,27,28,29,30,31 6/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7/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백산/비호곡/공중초원 74일 399,000원

5월/6월/7월 연휴 특별가

5/18,21,22,23,24,25,26,27,28,29,30,31 6/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7/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북경/민리장성/이화원/구경해자 74일 169,000원

5월/6월/7월 연휴 특별가

5/18,21,22,23,24,25,26,27,28,29,30,31 6/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7/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상해/항주/주자각 74일 249,000원

5월/6월/7월 연휴 특별가

5/18,21,22,23,24,25,26,27,28,29,30,31 6/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7/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유럽 전상품 Gift Set 증정!

편안하고 안전한 대한항공 전문 인출사 동행 문의 02-2003-2020

4대 옵션 | 4대 필수 | 동유럽 핵심 6국 9일 1,690,000원

5/21,24,28,30,6/3,6,10,13,16,18,21,25,28,30,6/11,14,17,20,23,26,29,31 6/1,4,7,10,13,16,19,22,25,28,31

2013년 BIG HIT | 북유럽 전문 여행사 | 러시아/북유럽(탈선) 11일/12일 2,790,000원

5/19,22,25,28,30,31 6/1,4,7,10,13,16,19,22,25,28,30,31 6/1,4,7,10,13,16,19,22,25,28,30,31 6/1,4,7,10,13,16,19,22,25,28,30,31 6/1,4,7,10,13,16,19,22,25,28,30,31

동유럽 핵심 6국 12일 1,790,000원

5/22,26,29,31 6/3,6,9,12,15,18,21,24,27,30,31 6/1,4,7,10,13,16,19,22,25,28,30,31 6/1,4,7,10,13,16,19,22,25,28,30,31 6/1,4,7,10,13,16,19,22,25,28,30,31

러시아/동유럽 3국(형/오/제) 10일 1,890,000원

5/20,23,26,29,31 6/2,5,8,11,14,17,20,23,26,29,30,31 6/1,4,7,10,13,16,19,22,25,28,30,31 6/1,4,7,10,13,16,19,22,25,28,30,31 6/1,4,7,10,13,16,19,22,25,28,30,31

동남아 ★저렴한 정박식 고급여행 02-2003-2200

베트남/하노이/하롱베이/닌빈/발마사지 74일/5월 249,000원

5/19,21,23,25,28,31 6/1,3,5,7,9,11,13,16,18,21,23,25,28,30,31 6/1,3,5,7,9,11,13,16,18,21,23,25,28,30,31 6/1,3,5,7,9,11,13,16,18,21,23,25,28,30,31

[특급호텔] | 특가/캠코리아/양코로와+마사지 75일/6월 379,000원

5/17,20,23,26,29,31 6/1,4,7,10,13,16,19,22,25,28,30,31 6/1,4,7,10,13,16,19,22,25,28,30,31 6/1,4,7,10,13,16,19,22,25,28,30,31 6/1,4,7,10,13,16,19,22,25,28,30,31

[파격특가] 방콕/피타야/알카자+나이트투어 5월 189,000원

5/17,18,19,21,23,26,29,31 6/1,4,7,10,13,16,19,22,25,28,30,31 6/1,4,7,10,13,16,19,22,25,28,30,31 6/1,4,7,10,13,16,19,22,25,28,30,31

[선착산 특가] 미얀마/양곤+시리암+황금대탈 75일/6월 388,000원

5/21,24,27,30,31 6/1,4,7,10,13,16,19,22,25,28,30,31 6/1,4,7,10,13,16,19,22,25,28,30,31 6/1,4,7,10,13,16,19,22,25,28,30,31

[특급호텔] 대만/타이/화롄+자우편 4일 479,000원

5/17,18,19,20,21,22,23,25,28,30,31 6/1,4,7,10,13,16,19,22,25,28,30,31 6/1,4,7,10,13,16,19,22,25,28,30,31 6/1,4,7,10,13,16,19,22,25,28,30,31

유럽 02)2003-2020

북유럽 '발이 알아서' 여행하기 좋은! 유럽 여행의 꽃! 서유럽 집중기!

서유럽 9/10국(베를린+프랑크푸르트) 13일/16일 1,880,000원

5/22,26,29,31 6/3,6,9,12,15,18,21,24,27,30,31 6/1,4,7,10,13,16,19,22,25,28,30,31 6/1,4,7,10,13,16,19,22,25,28,30,31 6/1,4,7,10,13,16,19,22,25,28,30,31

서유럽 5국(프랑크푸르트) 10일/11일 1,790,000원

5/21,24,27,30,31 6/1,4,7,10,13,16,19,22,25,28,30,31 6/1,4,7,10,13,16,19,22,25,28,30,31 6/1,4,7,10,13,16,19,22,25,28,30,31

베네룩스 3국(프랑크푸르트) 6/7일 1,190,000원

5/28,30,31 6/2,4,6,8,10,12,14,16,18,20,22,24,26,28,30,31 6/1,3,5,7,9,11,13,15,17,19,21,23,25,27,29,31 6/1,3,5,7,9,11,13,15,17,19,21,23,25,27,29,31

서유럽 4국(프랑크푸르트) 7~9일/10일 1,490,000원

5/22,25,28,30,31 6/1,4,7,10,13,16,19,22,25,28,30,31 6/1,4,7,10,13,16,19,22,25,28,30,31 6/1,4,7,10,13,16,19,22,25,28,30,31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 10일/12일 1,590,000원

5/22,25,28,30,31 6/2,5,8,11,14,17,20,23,26,29,30,31 6/1,4,7,10,13,16,19,22,25,28,30,31 6/1,4,7,10,13,16,19,22,25,28,30,31

호주/뉴질랜드 02)2003-2030

포트스튜어트/위도모/타우포 호수

호주 뉴질랜드 남북섬 10/11일 2,190,000원

5/23,27,30,31 6/2,4,6,8,10,12,14,16,18,20,22,24,26,28,30,31 6/1,3,5,7,9,11,13,15,17,19,21,23,25,27,29,31 6/1,3,5,7,9,11,13,15,17,19,21,23,25,27,29,31

미주/캐나다/텍사스 02)2003-2003

맛있는 하와이 5/6일 1,090,000원

5/16,17,22,23,24,25,26,27,28,29,30,31 6/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6/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일본 02)2003-2250

베트남/하노이/하롱베이/닌빈/발마사지 74일/5월 249,000원

5/19,21,23,25,28,31 6/1,3,5,7,9,11,13,16,18,21,23,25,28,30,31 6/1,3,5,7,9,11,13,16,18,21,23,25,28,30,31 6/1,3,5,7,9,11,13,16,18,21,23,25,28,30,31

베트남/하노이/하롱베이/닌빈/발마사지 74일/5월 249,000원

5/19,21,23,25,28,31 6/1,3,5,7,9,11,13,16,18,21,23,25,28,30,31 6/1,3,5,7,9,11,13,16,18,21,23,25,28,30,31 6/1,3,5,7,9,11,13,16,18,21,23,25,28,30,31

베트남/하노이/하롱베이/닌빈/발마사지 74일/5월 249,000원

5/19,21,23,25,28,31 6/1,3,5,7,9,11,13,16,18,21,23,25,28,30,31 6/1,3,5,7,9,11,13,16,18,21,23,25,28,30,31 6/1,3,5,7,9,11,13,16,18,21,23,25,28,30,31